

제4실 | 근세의 공예 | 전시 해설

N-130 기보시

기보시는 난간의 기둥 끝부분 등에 다는 보주 모양의 장식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의 몸체에 파꽃 형태의 보주를 얹었습니다. 구멍과 구멍 사이에 있는 명문으로부터 제작 연도, 기증자, 사용 장소 등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N-93 마키에 나전 수레바퀴무늬 손궤

헤이안시대에 제작된 국보 마키에 나전 수레바퀴무늬 손궤(H-4282)를 에도시대에 본떠 만든 것입니다. 원작과는 무늬와 장식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작은 손궤가 아닌 경전을 넣는 경전함으로 추정됩니다.

N-64(부속) 오대명왕 방울 부속 상자

N-13(부속) 범망경 부속 함

겐로쿠 7년(1694), 호류지는 에도의 에코인이라는 절로 보물을 옮겨 일반 공개하였습니다. 이때 도쿠가와 막부의 제5대 쇼군인 쓰나요시의 생모 게이쇼인이 이 보물들을 수납할 상자를 기부하였습니다. 뚜껑에는 도쿠가와 가문의 문장과 게이쇼인의 본가인 혼조 가문의 문장을 금 마키에로 표현하였습니다.

N-299, N-298 스에바코

스에바코는 승려가 법의나 법구 등 법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넣어 곁에 놓아두는 상자입니다. 셋소바코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스에바코 모두 나무로 만든 상자에 금동판을 붙인 것으로, 스에바코(N-299)에는 간에이 5년(1628)이라는 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N-293 화병

이 작품은 화대(N-295) 등과 함께 19세기 초에 센토 고쇼(퇴위한 천황의 거처)로부터 호류지 사이엔도(경내 건물)의 약사여래상에 봉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거북이 형태의 손잡이 등 중국 고대 청동기에 독자적인 장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N-295 화대

뿔나무로 만든 육각형의 받침대입니다. 측면에는 육각형의 거북이 등껍질무늬가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화병(N-293) 등과 함께 센토 고쇼(퇴위한 천황의 거처)로부터 호류지 사이엔도(경내 건물)의 약사여래상에 봉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N-131 고쇼 인형

고쇼 인형은 에도시대 18세기 전반 무렵부터 교토의 귀족들 사이에서 사랑받은 머리가 크고 토실토실한 알몸의 유아 모습을 한 인형입니다. 19세기 초에 센토 고쇼(퇴위한 천황의 거처)로부터 호류지 사이엔도(경내 건물)의 약사여래상에 봉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N-100 마키에 잠자리와 사마귀무늬 인룡

N-101 마키에 글자 '수(壽)'무늬 인룡

인룡은 허리띠에 차고 다니는 휴대용 약통입니다. 곤충과 다양한 글자체의 '수(壽)'라는 한자를 마키에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인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식성이 더해져 간 것으로 보입니다.